

이란 ICT 시장 환경 분석

유성훈*

1. 개요

걸프 연안에 위치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등과 접경하고 있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국토와 인구 8,100만 명(2014년 기준)을 보유한 국가이다. 세계적인 자원부국(2014년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4위 & 천연가스 1위)이자 중동의 경제대국으로 역내 국가들 중 제조업이 가장 발달하였다.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5년 7월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간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이 확정되고, 2016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 이행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되어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란의 경제성장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Hassan Rouhan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유 수출 확대를 위해 제재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416, shyoo@kisdi.re.kr

이란의 인류통계학적 그리고 경제적 변수의 특징을 고려할 때 ICT 분야는 이란의 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의 30세 이하 인구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읽고 쓸 줄 알기 때문에 ICT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란 정부(OIETAI)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통신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6년 2월, BMI가 발표한 「IRAN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5-YEAR FORECASTS TO 2020」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이란의 ICT 시장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이란 ICT 시장 현황

BMI에 따르면 2016년 1월에 이뤄진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조치는 향후 이란에 대한 직접투자(FDI)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2.9% 수준의 GDP 성장률이 2020년에는 4.8%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하반기, 3G와 4G 데이터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이란의 모바일 시장은 2020년까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시장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 기인하여 침체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이란 ICT 시장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유선 (Main Telephone Lines)	라인 수 (천 개)	28,462	29,316	30,049	30,650	31,120	31,587	32,050	32,509
	100명당 라인 수 (개)	36.9	37.5	38.0	38.3	38.4	38.6	38.8	39.0
모바일 (Mobile Phone Subscribers)	가입자 수 (천 명)	100,966	114,410	129,055	137,701	143,209	147,506	150,456	151,960

구분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모바일 (Mobile Phone Subscribers)	100명당 가입자 수 (명)	130.9	146.4	163.1	172.0	176.9	180.3	182.1	182.2
3G&4G	가입자 수 (천 명)	1,600	9,920	23,213	33,659	41,737	47,997	53,037	57,916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1.6	8.7	18.0	24.4	29.1	32.5	35.3	38.1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천 명)	3,695	4,531	5,417	6,403	7,482	8,642	9,865	11,127
	100명당 가입자 수 (명)	4.8	5.8	6.8	8.0	9.2	10.6	11.9	13.3

e/f: BMI estimate/forecast

자료: BMI(2016 Q2)

BMI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모바일 가입자의 수는 2016년에 예상되는 새로운 MVNO 사업자의 등장과 함께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억5,200만 명(182.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2/4분기 TCI(Hamrahe Aval)가 3G 서비스를 시작하며 해당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 3G/4G 서비스의 경우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0년에는 약 1,110만 명(13.3%)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 ICT 시장에 대한 BMI의 SWOT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이란 통신 시장 SWOT 분석

강 점(S)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모바일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입자 수 •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과 혁신 • 3G와 4G의 도입으로 인한 모바일 데이터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 •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검열 • 한정된 국제 투자(향후 개선 여지 有)
기 회(O)	위 험(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월, 제재 해지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예상 • 많은 미사용 선불 요금제 사용자들이 보급률을 부풀리며 미래 고객 성장 잠재력을 가림 • 높은 스마트폰 전파율과 3G 서비스의 잠재수요는 사용자의 증가와 이익 성장을 기대 • 발전된 데이터 서비스의 시행은 사업자와 제3자에게 고객과 기업을 위한 데이터 중심 서비스 개발 기회 제공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의 등장과 대규모의 무선광대역 허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모바일과 데이터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모바일 데이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이 높은 수익성 분야의 잠재적 성장을 한정시킬 수 있음 • 불안정한 정치 및 보안 환경이 장치 제조자들과 콘텐츠 제공자들의 투자를 방해할 수 있음

자료: BMI(2016 Q2)

이란의 주요 통신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무선통신 시장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Iran(TCI)가 있다. TCI는 이란 유선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도 Hamrahe Aval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란전기발전회사(Iran Electronic Development Company)와 Mobile Telephone Networks(MTN)¹⁾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MTN

1) MTN(前 M-Cell)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모바일통신업체로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 MTN 가입자 수는 전 세계 3억 명에 달한다.

Irancell의 경우 모바일 시장에서 TCI와 함께 복점(複占, 2개 업체에 의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이란 통신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통신 시장	지배(소유) 구조
TCI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Iran)	- 유선 - 모바일(브랜드명: Hamrahe Aval) - 데이터	- Etemad Mobin: 50% - Equity Shares Brokerage Companies: 20% - 정부: 19.9% - TCI 직원: 5.09% - 그 외: 5%
MTN Irancell	모바일	- Iran Electronic Development Company: 51% - MTN: 49%
Taliya	모바일	- RIC(Rafsanjani industrial Complex)
MTCE (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Esfahan)	모바일	-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Esfahan Province

자료: BMI(2016 Q2)

(1) 이란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현황

MTN Irancell과 TCI(Hamrahe Aval)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모바일 시장은 3G/4G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하반기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BMI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시장은 2020년까지 꾸준한 속도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 다른 MVNO 사업자의 등장과 새로운 무선브로드밴드 허가 및 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바일 가입자의 대다수가 선불폰을 이용하고 있고, 비활성화된 SIM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한편 2016년 1월 이루어진 해제 조치는 향후 이란이 새로운 모바일 기술과 장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만, 만약 이란이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제재 해제의 파급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표 4〉 이란 모바일 시장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모바일 (Mobile Phone Subscribers)	가입자 수 (천 명)	100,966	114,410	129,055	137,701	143,209	147,506	150,456	151,960
	100명당 가입자 수(명)	130.9	146.4	163.1	172.0	176.9	180.3	182.1	182.2
3G&4G	가입자 수 (천 명)	1,600	9,920	23,213	33,659	41,737	47,997	53,037	57,916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1.6	8.7	18.0	24.4	29.1	32.5	35.3	38.1

e/f: BMI estimate/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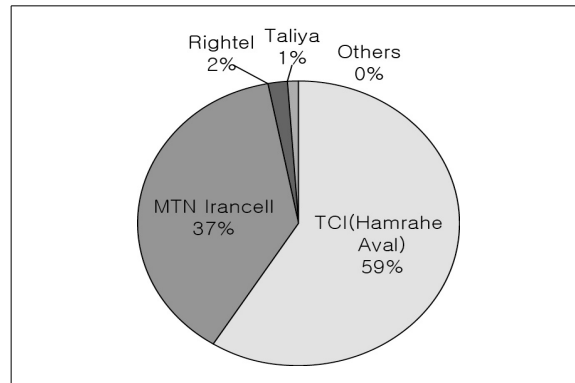
자료: BMI(2016 Q2)

〈표 5〉 이란 모바일 시장 점유율('15년 9월)

업체명	비중
TCI(Hamrahe Aval)	59.1
MTN Irancell	38.3
RighTel	1.4
Taliya	1.1
Others	0.1

자료: BMI(2016 Q2)

〔그림 1〕 이란 모바일 시장 점유율('15년 9월)



자료: BMI(2016 Q2)

2014년 8월, 이란 정부가 기존 모바일 사업자 TCI(Hamrahe Aval)과 MTN Irancell에 3G/4G 서비스를 허가한 이래 모바일 네트워크와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교육과 오락 콘텐츠 등) 확대를 함께 가져왔다.

MTN Irancell은 2014년 9월, 3G 서비스를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4G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 졌는데, 2015년 9월 기준, MTN Irancell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400만 명에 이른다. 반면 2011년부터 3G 네트워크를 운영한 RightTel의 경우, 양질의 네트워크 확충에 실패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MTN Irancell보다 6개월 늦게 데이터 시장에 진출한 TCI(Hamrahe Aval)는 그들이 보유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며, 이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CI(Hamrahe Aval) 자료에 따르면, 작년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선불폰이 이끌었다. 이는 새로운 가입자의 대부분이 도시 외 지역에서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CI(Hamrahe Aval)의 후불제 가입자의 수는 전체의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

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스마트폰 구입에 따른 약정이 동반되는 3G/4G 서비스는 활성화는 향후 후불제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란 유선통신·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이란의 높은 모바일 가입자 수를 고려할 때, 2011년부터 년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란 유선통신 시장의 꾸준한 발전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TCI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임을 밝혀, 향후 그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어 1.6%의 연평균 성장률로 2020년까지 3,350만 회선(3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MI에 따르면 모바일 시장의 경쟁 확대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유선통신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선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TCI가 지속적인 투자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란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말,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3.3%에 이르러 약 1,11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이란 유선통신&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유선 (Main Telephone Lines)	라인 수 (천 개)	28,462	29,316	30,049	30,650	31,120	31,587	32,050	32,509
	100명당 라인 수 (개)	36.9	37.5	38.0	38.3	38.4	38.6	38.8	39.0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천 명)	3,695	4,531	5,417	6,403	7,482	8,642	9,865	11,127
	100명당 가입자 수 (명)	4.8	5.8	6.8	8.0	9.2	10.6	11.9	13.3

e/f: BMI estimate/forecast

자료: BMI(2016 Q2)

유선통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TCI의 독점적 지위에서 기인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흐름에 비춰볼 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이 기존의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유선통신 서비스는 주요 도시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란은 세 가지 형태의 유선 브로드밴드 허가 제도가 있다. 첫 번째, TCI를 포함한 11개의 PAP(Private Access Providers)는 국가 유·무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를 대규모단위(Wholesale Basis)로 제공한다. 두 번째, ISDP(Internet Service Distribution Providers)는 PAP와 ISP 사이에서 지역 단위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ISP가 소규모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 번째 형태이다. 이러한 환경은 브로드밴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이란의 통신규제청(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CRA)은 2015년 10월 2.3GHz, 2.6GHz, 3.5GHz 대역에서의 주파수 할당을 예고하였다. 해당 대역 모두 4G/LTE 서비스가 가능한데, 2.3GHz과 2.6GHz 대역의 경우 기존 유선사업자, 3.5GHz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3. 결 어

이란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중동 최대의 제조업 기반 국가이다. 역내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FDI)의 확대와 내수기반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란 통신시장의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제한적인 투자 기회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투자자들로부터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젊고 교육과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진 이란의 ICT 시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3G/4G 서비스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확대, 새로운 MVNO 사업자의 등장과 무선브로드밴드 허가, 예정된 주파수 경매는 향후 이란 모바일 통신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는 이번 제재 해제 조치로 인해 향후 5년간 중동·터키·아프리카(Middle East, Turkey, and Africa, META) 지역에서 이란의 ICT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CT 관련 단말기를 포함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기업 솔루션과 운영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에 예상된다. 또한 이란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2016~2020)」, ICT 부문에서 국가정보네트워크 확충과 발전을 위한 전자거버넌스 확장과 보안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6), “이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BMI Research (2016). “IRAN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5-YEAR FORECASTS TO 2020.” Londo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
- OIETAI (2016). “Invest in Iran: ICT.”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
- Small Media (2016). “Filterwatch: January 2016, Iranian Internet Infrastructure and Policy Report.” London: Small Media.